

해외양돈산업시찰 / 칠레

<편집부>

FTA 이후, 칠레 양돈산업 동향

칠레는 지난 2004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양돈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12시간 시차를 두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칠레는 인구 1천620만명으로,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인 산티아고에 몰려있다. 1인당 국민소득 7천 296 달러로 남미 국가 중 최고다. 연성장율 국내총생산(GDP) 6.3%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칠레는 수입물품이 개방된 시장으로 평균 관세 2.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돈육생산자협회, 생산·수출위해모든자료오픈

칠레 양돈산업의 중심에는 돼지고기 생산자협회(ASPROCELA)가 있다. 협회는 돼지고기 생산, 가공, 수출 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화 주요 기업들을 비롯, 35개 업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복합영농 등의 농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협회는 돼지고기 생산성 향상은 물론 수출확대를 위해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오픈하고 있다. 협회는 생산자는 물론 가공, 수출업체까지 회원으로 구성됨은 물론 돼지고기까지 회원으로 구축돼 있다.

협회에서는 돼지고기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자료, 정보오픈 ▲관련기술 및 법률적 측면 연구 ▲교육 ▲회원과 공공기관 연계 생산증진 ▲회원사 대변 ▲기술 도입, 적응캠페인 활동 ▲관련 산업 정보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축산업과 관련된 다른 국가 또는 해외, 국제협회와 협력

▲돼지고기 생산이력 기록사부소와 긴밀한 협조, 유통망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돈육 연간 41만톤 생산, 매년 9% 이상 성장

지난 2002년 5월 33톤을 시작으로, 2003년 1만2천 300여톤, 2004년 1만7천400여톤, 2005년 2만5천 300여톤 등 우리나라로 수송하는 물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04년 FTA 체결 이후 수출량이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이다. 한국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칠레산 돼지고기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칠레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 1993년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5년 총 41만664톤을 생산하여 그 중 20.6%에 해당하는 18만5천여톤을 수출하였다. 이 같은 생산량은 2004년 대비 10.1%, 2003년 대비 12.4% 각각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 5년 전인 2000년 대비 57.1%·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무려 138.2%의 비약적인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 사육두수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432만8천두로 지난 2003년 대비 11.0%, 5년 전인 2000년대비 41.9% 각각 증가했다. 또한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서는 무려 97.0%의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 칠레 돼지고기 생산 동향

(단위: 톤)

구분(년, 월)	생산	수출	수입	소비	가격(US\$/kg)
2003	365,300	312,500	14,720	253,284	1.24
2004	372,800	353,200	19,510	277,428	1.58
2005	410,664	484,812	29,800	228,150	1.80
2005(1-3Q)	303,800	338,400	3,360	166,678	1.80
2006(1-3Q)	346,700	435,000	7,200	213,426	1.59

생산비 kg당 0.7달러, 계열화 90% 장악

이 같은 사육두수 증가는 노동, 자본 집약적인 칠레 양돈산업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칠레의 돼지 생산비용은 미국과 멕시코의 중간 정도인 kg당 약 0.72 달러 정도이다. 이는 한국보다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수출 및 수입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한 고도의 생산기술, 지지가, 지렁이초기투자비, 지인금, 풍족한 자연환경에 따른 위생비용 절감 등도 생산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부분육 가공까지 일관생산 되고 있는 칠레산 돼지고기는 생산이력이 분명함에 따라 육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돼지 평균 출하중량도 지난 90년대초만 사육기준 80kg에서 2003년 94kg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육돈 사육기간도 일반 돼지는 160일인데 비해 수출용은 180일, 생체 중량 110kg을 유지하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염병이나 전염병의 이동이 자연조건에 의해 차단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육지로는 해발 2천700m 이상의 국경과 공항, 해상 위공 시 보는 수화물의 검사를 통해 강력한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위생적이며 건강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 수출 6만톤 확대 계획

칠레는 한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 4년새 전체 수출물량의 23%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더욱이 칠레는 내년까지 한국 수출을 3만여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부터는 매년 1만톤 증가시켜 오는 2010년 6만톤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자국 내 최대 기업인 아그리슈퍼는 물론 확장해 들어갔으며 과미사기업역시 농장확장에 착수하는 등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칠레 돼지고기 수출 국가는 일본 61%, 한국 23% 등 아시아 수출에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멕시코, EU(유럽국가연합)이 각각 4%, 아르헨티나 2%, 기타 6% 등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 10년간 물량에서 30%, 총 매출에서 43%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증가는 칠레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 내수소비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수출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다. 또한 FTA 등은 칠레 돼지고기 수출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물량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돼지고기 수출동향

구분(연도)	수량(톤)	가격(US\$/kg)
2000	32,771	52,390
2001	56,828	76,208
2002	81,528	111,313
2003	112,531	157,240
2004	153,265	248,696
2005	184,812	312,496